

# 거북·호랑이·계·수달...사찰 안의 보물찾기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지음



제천 신록사 극락전 박공의 널판에는 이런 그림이 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토해낸다.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뱉어낸다. 그림의 배경이 된 부처님 전생담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광경을 보고 매우 가엾게 여기어 큰 물고기를 잡아 멀리 보내었다. 잡아먹힐 걱정을 털게 된 작은 물고기는 왕성하게 자라서 고래처럼 큰 크기로 성장하였다. 그 후 바닷가에 흥년이 들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물고기는 물으로 뛰어올라 자신의 몸을 보시하였고 바닷가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천장에 “꼬리에 꼬리를 문 큰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은 어떤 연유일까. 아마도 보시의 공덕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찰에는 전각과 불상, 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현판 뒤에는 용, 돼지, 도깨비, 호랑이 등이 숨겨져 있다. 구석구석에는 한국 불교에 깃든 다양한 문화현상으로서의 그림이나 사물 등이 있다.

사찰 안의 건축이나 회화에 배치된 다양한 ‘보물’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한때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가 환속 후 우리문화 찾기에 열심인 노승대 작가가 펴낸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사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지만 의미는 남다르다고 강조한다. 수천 년 세월을 거치며 ‘정형’을 만들어 온 건축이나 회화에 의미 없이 배치된 것은 없을 터다. 유교나 도교의 영향으로 자리 잡은 매란국죽 뿐 아니라 민화의 바람을 탄 계, 포도, 토끼, 거북이 같은 변화도 그러한 경우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수달

저자는 책에 나온 주인공들이 사찰에 등장한 것은 몇 가지 흐름이 있다고 부연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임란 이후 등장한 반야용선(般若龍船) 개념이다. 피안의 정도에 이르러 가는 배로 상징했다는 것인데, 주변은 온통 바다로 볼 수 있다. 수중생물인 물고기, 거북에서부터 절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계, 가재 등도 등장한다.

“천은사 극락보전(보물 제2024호)의 경우는 정면 현판 옆에 이미 청룡 황룡이 있지만 좌우에 있는 귀공포의 조각된 용의 꼬리가 대각선으로 건너가 뒤쪽 귀공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정면 소맷돌에 용이 없는 대신 아예 법당을 배의 몸통으로 보고 앞, 뒤로 용의 머리와 꼬리를 새겨 넣어 법당이 반야용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각은 여수 흥국사 대홍사(보물 제396호) 기단부에도 있고 청도 대적사 극락전(보물 제836호) 기단부에도 있다. 흥국사의 경우는 마당 석등의 대좌를 거북으로 배치해 바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민화의 유형은 불교와 관련된 그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그림들은 피폐해진 사찰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데 일조했다. 남쪽이 풍성한 포도 그림은 다산을 상징하고 갈대를 부여잡은 계 그림은 과거 시험 합격의 의미였다.

그러나 이러한 책에 소개된 ‘보물’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불국사 현판 뒤 뭇돼지는 절집을 많이 다닌 사람도 찾기 힘든 곳에 숨어 있다. 완주 송광사 천장의 계나 거북이,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책에는 숨겨진 보물과 함께 400여 장의 컬러 사진과



미항사 대웅전 주춧돌에 새겨진 거북.

내력이 소개돼 있다. 문화답사 40년 경력이 오롯이 드러난 결과다. <불광출판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 나쁜 조연 = 우리 주변엔 감동적인 조연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리학자 비너스 니콜리노가 통찰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기분 좋은 ‘헛소리’, 나쁜 조연을 들춰내는 책을 펴냈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부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막는 조연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좋은 조연’을 변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샘타·1만5000원>

▲ 인생의 밑줄 = ‘엄마 인문학’, ‘책담’ 등을 펴낸 인문학자 김경집이 용기, 태도, 고독, 관계 등 우리 내면의 힘을 구성하는 것들에 관한 114개 짧은 문장들과 그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을 펴냈다. 삶의 트랙에서 벗어나려는 자의 의지, 오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마음과 생각이 농밀해지는 시간 등 세 가지 주제를 축으로 인문학자로서 품어왔던 사유를 풀어낸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 영국에서는 2014년야비로소 런던 템즈강에 한국전쟁기념비가 세워질 만큼, 한국전쟁을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이 책은 아버지가 전쟁 중 쓴 일기와 생전에 남긴 자서전을 읽으며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전쟁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어루



만지는 법을 배우자고 제안한다. <창비·1만5000원>  
▲ 피아클리벤의 금화 1.2 = 온라인 소설 플랫폼 ‘브릿지’에서 연재 중인 판타지 장편 소설이 책으로 출간됐다. 용에게 잡혀와 죽을 위기에 처했던 한 소녀가 세상의 흐름을 뒤바꿀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용에게 잡혀간 공주’ 모티브를 뒤집고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등 고전 판타지의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가지·각권 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나라를 지킨 장군 1~5 = ‘역사학자 33인이 선정한 인물로 보는 한국사’ (파랑새) 시리즈를 재편성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중심으로 5개의 위인전을 엮었다. 각 권은 이순신, 연개소문, 장보고, 윤관, 전봉준을 다루며,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실감나는 글로 풀어냈다. <파랑새·각권 1만1000원>

▲ 도시 수달 달수네 아파트 =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라진 동물, 곤충, 씨앗, 식물 등을 다루는 ‘우리 땅 우리 생명’ 네 번째 시리즈로, 이번에는 오염된 강을 피해 호수에서 생활하던 수달 가족이 개체 수가 줄어들어 보금자리 찾기를 대구 신천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담겼다. 로드킬, 도시의 불빛과 소음, 이동이 힘든 수종보 등 오늘날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힘든 우리나라 환경의 현주소를 풀어낸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



▲ 세종 대왕 바른 소리를 만들다 = 세종대왕에 관한 연극을 준비하는 승함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종대왕의 삶과 한글의 탄생 배경을 알아본다.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글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다를지 등을 풀어내며 한글 창제의 원리도 자세하게 살펴본다. <천개의바람·1만1000원>

# 허수경 시인이 세상에 남긴 시·인간에 대한 이야기

가기 전에 쓰는 글들

허수경 지음

“날카로운 혀를 늘 심장에 지니고 다니렴.”

2018년 3월22일, 생의 끝을 예감한 시인은 자신의 마지막 책을 만들어줄 이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시인 허수경이 아끼는 후배이자 편집자인 시인 김민정에게 보낸 글이다. “시인이니/ 시로 이 세계를 가름하는 걸/ 내 업으로 여기며 살아왔으니/ 마지막에도 그려려고 한다”며 가기 전에 쓴 ‘시들과 ‘말들’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는 그녀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글이다.



노트, 은행업무와 누군가의 전화 번호와 주소가 적힌 각종 메모들을 쟁쟁 한국어로 돌아왔다.

허수경 시인 1주기를 맞아 유고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이 나왔다. 시인의 남편은 “수경이는 바이올레타야”라 말했고,

허수경은 그해 10월 3일 독일 뮌스터에서 생을 마감했다. 수목장을 위해 뒤늦게 뮌스터로 날아간 김 시인은 작고 낡은 노트북 한대와 모노종이로 된 스프링

그 말처럼 보랏빛 표지를 입은 시인의 유고집은 생의 통찰이 담긴 ‘아주 긴 시(詩)’처럼 읽힌다.

1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글들’이라는 폴더안에 7년간 써내려간 시작 메모를 시기별로 담았다. ‘희망들’, ‘병상 일기’, ‘가기 전에 쓴 글’ 등의 이름이 붙은 폴더들이다. 2부는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출간한 이후 타계하기 전까지 각종 문예지에 발표한 시들을 모았다. 3부는 시인이 자신의 시에 부친 작품론과 시론으로 채웠다.

8년간의 세월이 담긴 책에는 언어에 대한, 시에 대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삶과 죽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괴한 장소’인 병원의 풍경 등 발병 이후, 죽음을 앞둔 이의 감정 변화 등도 세세히 담겼다. 또 시와 함께 그녀 삶의 또 다른 축이었던 고학과 발굴에 대한 이야기, 김혜순·문태준·박준 등 선후배 문학인들에 대한 단상 등도 실렸다.

1992년 뮌스터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당시 지도교수와 결혼, 독일에서 거주하며 시작활동을 해온 시인은 ‘슬프만한 거름이 어디 있더라’ ‘혼자 가는 먼 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등의 시집과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너 없이는 걸었다’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산문들을 엮은 또 한편의 유고집은 2020년 6월9일 시인의 생일에 맞춰 출간될 예정이다. <난다·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